

2019년 12월 12일

국내 기업, 1년 후 보다 중기 경기전망에 더 긍정적

HSBC 글로벌 기업 설문조사에 따르면, 국내 기업들은 1년 후 보다 5년 후 경기전망에 보다 긍정적인 견해를 갖고 있으며, 타국 기업보다 보호무역에 영향을 덜 받는다고 느끼는 것으로 나타났다.

‘HSBC 네비게이터’는 전세계 35개국 기업 리더들을 대상으로 기업경기와 성장에 대한 전망을 조사한 글로벌 기업 설문조사이다. 올해에는 국내 기업 350곳 포함, 전세계 9,131개 기업이 참여하였으며, 투자 우선순위, 의사결정 추진 동력, 혁신 계획, 성장전망에 대한 내용이 포함되어 있다.

대다수 국내 기업, 현실적으로 경기전망

국내 기업들은 단기 전망에 대해서는 현실적인 견해를 갖고 있는 것으로 조사되었다. 응답 기업의 55%는 성장에 대한 기대가 1년 전과 동일하다고 밝혔으며, 비관적인 견해 (20%)와 낙관적인 견해의 (19%) 비중이 비슷했다. 22%는 내년에 매출이 줄어들 것이라고 내다봤다.

한편, 설문 참여 국내기업의 74%는 향후 5년간 매출이 늘어날 것으로 전망했다.

국내 기업, 보호무역에 대한 영향을 덜 받는다고 느낌

국내 기업들은 보호무역이나(51%) 지정학적 요인(44%)에 대한 영향을 전세계 타 지역 기업이나 (각 65%, 64%), 아태지역내 타국 기업(각 71%, 61%)에 비해 상대적으로 덜 느끼는 것으로 나타났다.

흥미롭게도 보호무역의 영향을 받았다고 응답한 국내 기업 중 26%는 득보다 실이 많을 것이라고 답했는데, 이는 글로벌, 아태지역 평균 (16%, 17%보다) 높은 수준이다.

그러나 이에 대한 국내 기업들은 전세계 타 지역 기업과 다르게 대응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지정학적 위협에 대응하여 사이버 보안에 투자하는 국내 기업은 13%에 그쳐, 글로벌 평균 23%보다 상당히 낮았다.

PUBLIC

지속가능성, 경쟁우위 확보에 필요한 것으로 인식

국내 기업들은 특히 소셜(social) 분야에서 지속가능경영에 관심이 큰 것으로 조사되었다. 상품의 안전과 품질이 자사 기업활동과 관련이 있다고 생각한 기업의 82%가 이를 측정하는 것으로 집계 되었으며, 이는 글로벌 평균 71%보다 높은 수치이다. 또한 자사 기업활동이 지역사회에 영향을 미친다고 생각하는 기업의 61%가 이를 측정한다고 답하였으며, 이는 글로벌 평균인 47%보다 훨씬 높은 수준이다.

국내 기업이 글로벌이나 아태지역내 타국 기업보다 지속가능경영의 필요성을 더 느끼는 것으로 드러났는데, 이에 대한 요인으로는 경쟁우위 확보 (국내 기업 29%, 글로벌 23%, 아태 26%), 투명성 및 추적 가능성 제고 (국내 기업 28%, 글로벌 21%, 아태 24%), 구매업체 기대충족 (국내 기업 25%, 글로벌 23%, 아태 20%)이 꼽혔다.

한편, 국내 기업들은 지속가능경영에 보다 주력해야 한다는 압력을 느끼는 것으로 조사되었는데, 주로 최종 소비자 (국내 기업 44%, 글로벌 34%, 아태 37%), 경쟁사 (국내 기업 39%, 글로벌 36%, 아태 41%), 공급망내 구매업체 (국내 기업 39%, 글로벌 22%, 아태 26%)로부터 이같은 압력을 느끼는 것으로 집계 되었다.

향후 5 년간 투자 우선순위에 대해서는, 37%의 국내 기업이 지속가능한 생산을 제고하기 위한 기술, 혁신 및 인프라 투자를 꼽았고, (글로벌 33%, 아태 38%), 34%는 공급업체가 지속가능경영을 제고할 수 있도록 이들과 협력하는 것을 꼽았다 (글로벌 25%, 아태 28%).

주목할 만한 것은, 유엔의 지속가능개발 목표 달성에 책임을 느끼는 국내 기업은 40%에 그쳐, 글로벌 63%, 아태 67%보다 현저히 낮다는 것이다.

정은영 HSBC 코리아 대표는 "HSBC 는 글로벌 기업 설문 조사를 통해 국내 기업의 경기 체감과 전망이 전세계 타 지역 기업들과 어떻게 비교되는지에 관해 자세한 분석자료를 제공하고 있다. HSBC 는 선도적인 글로벌 무역은행으로서, 고객들이 글로벌, 지역별, 각 현지 경제 상황을 심도있게 이해할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정보를 제공할 것이다"라고 밝혔다.

ends/more

보도자료 문의:

서현진

02-2004-0882

hyonjinsuh@kr.hsbc.com

PUBLIC

HSBC 네비게이터

HSBC 네비게이터는 35 개 시장 9,131 명의 의사 결정자들을 대상으로 무역 활동 및 성장에 대한 기업 심리와 전망을 측정한 글로벌 설문 조사이며, 2019 년 8 월부터 9 월까지 Kantar 가 HSBC 를 위해 실시했다. HSBC 네비게이터는 기업이 글로벌 무역 전망에 대한 이해를 바탕으로 새로운 기회를 찾고 현명한 의사결정을 할 수 있도록 도와준다. 설문보고서 전문은 다음 링크에서 볼 수 있다.

www.business.hsbc.com/trade-navigator

이 설문조사는 아르헨티나, 호주, 방글라데시, 벨기에, 브라질, 캐나다, 이집트, 프랑스, 독일, 그리스, 홍콩, 인도, 인도네시아, 아일랜드, 이탈리아, 일본, 중국 본토, 말레이시아, 멕시코, 네덜란드, 폴란드, 러시아, 사우디 아라비아, 싱가포르, 남아프리카, 한국, 스페인, 스웨덴, 스위스, 태국, 터키, UAE, 영국, 미국 및 베트남에서 이루어졌다.

설문에 참여한 기업 중 5 천 곳 이상이 연 매출 5 백만달러-5 천만달러의 중소기업이었으며 나머지는 대기업이었다.

상세 내용: www.business.hsbc.com/trade-navigator

HSBC

HSBC는 한국에서 은행지점과 증권지점을 운영하고 있다. 홍콩상하이은행은 HSBC그룹의 창립 멤버로서, 개인금융, 커머셜 banking, 글로벌 banking 및 마켓, 글로벌 프라이빗 banking의 4개 사업군을 운영하며 고객에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 HSBC 그룹은 유럽, 아시아, 북미, 중남미 및 중동 및 북아프리카의 66 개 국가 및 지역의 고객에게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 2019 년 9 월 30일 기준 HSBC그룹의 자산은 2조7천2백80억 달러로, HSBC는 세계 최대 은행 및 금융 서비스 기관 중 하나이다.